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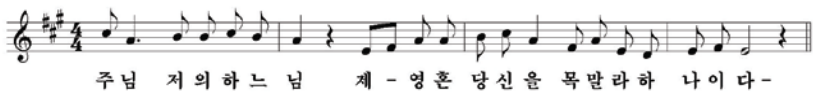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6세기, 채색 삽화, 로사노 대성당 보물실, 로사노, 이탈리아

[제1독서] 지혜 6,12-16

[화답송] 시편 63(62),2,3-4,5-6,7-8
(◎ 2ㄷ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2독서] 1테살 4,13-18 <또는 1테살 4,13-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복음] 마태 25,1-13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1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화 해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성경 사본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이 작품에는 열 처녀의 모습이 담겨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횃불을 밝히며 주님을 맞아 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꺼진 횃불을 들고 문밖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만이 그분과 함께 구원의 식탁에 앉아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정몽모 에밀리오 신부)

복음 묵상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 달라고 청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소 냉정하게 들립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로운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간청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주인은 문을 열어 줄 법하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유다교에서 ‘닫힌 문’은 놓쳐 버린 기회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며 그 준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열 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의 삶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지금이 혼인 잔치를 위한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현재의 삶에 따라 슬기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교의 ‘닫힌 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서 종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김태진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제9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신 **김태진(베네딕토) 신부**를 환영하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2020년 11월 1일 부임미사



위령성월 전대사를 11월 한 달로 기간 연장

교황청 내사원 코로나19로 인한 조치

교황청 내사원이 전통적으로 위령 성월 첫 주간인 11월 1-8일 부여했던 전대사를 11월 한 달로 기간을 연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자들이 교회나 묘지를 방문하지 못하거나 고해성사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 내사원은 아프거나 자가격리 등 다양한 이유로 전대사 조건인 교회나 묘지 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갖추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통적으로 신자들은 11월 1-8일 교회 묘지를 참배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해진 조건을 수행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인 11월 2일에 교회나 묘지에서 봉헌되는 위령미사에 참례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피아첸차 추기경은 “정부의 봉쇄를 비롯한 ‘중대한 이유’로 집이나 거처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의 복음 봉독, 자비의 활동 등으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면서도 “전대사를 위한 기본 조건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대사를 위한 기본 조건은 죄로부터의 회심,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등이다. 코로나19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못할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교황, “죽은 이들, 특히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을 맞아 트윗 메시지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 그들을 치료하다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억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죽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간 이들을 위해,
그리고 환자들에게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몇 년 동안 11월 2일마다 여러 묘지를 방문했다. 지난해에는 비아 살라리아에 위치한 프리실라 카타콤바를 찾아 미사를 봉헌했다. 2018년에는 로마 남부 외곽에 있는 라우렌티노 묘지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고, 어린이들의 무덤 앞에서 잠시 멈추어 감동을 주었다. 질환이나 사고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과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들이 이곳 ‘천사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2017년에는 네투노의 미군 묘지를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탈리아에서 전사한 미군들이 잠든 곳이다. 교황은 당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호소를 되풀이했다. 이어 로마 교외에 위치한 아르데아티네 동굴을 방문해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추모관에서 기도했다. 2016년에는 프리마 포르타 묘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이보다 앞선 3년간, 곧 2015년, 2014년, 2013년에는 11월 2일이 아니라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에 로마 소재 베라노 묘지를 방문했다. <Debora Donnini / 번역 이창욱>

2020년 성소주간

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

November 1-7



This year **National Vocations Awareness Week** is November 1-7. It is an annual invitation to reflect on the idea of vocation, which comes from the Latin *vocare*, “to call.” No matter which vocation we are called to live as an expression of God’s love in the world, everyone is called to holiness. How are we progressing along that path, and how we may be called to pray for, support and encourage others in exploring their vocations?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vocations-awareness-week/>

Get to know our seminarians and what led them to seminary

- Click each image to find out -

Meet our Seminarians



Arlington Diocese

Meet our Seminarians



DONGHAN LEE

Meet our Seminarians



PAUL RHEE

Download Vocations Resources

By our baptism, all Christians have a vocation to holiness that can be lived out in a variety of ways. Access resources below and on our website to aid your discernment process and pray for those currently discerning or living out their vocation.



Prayer for my vocation
(Prayer Card)



Prayer for our Seminarians
by **Name** (Prayer Card)

DAILY PRAYER TO DISCOVER MY VOCATION

Heavenly Father, I know that You love me.
I trust that You have a special vocation for
my life that will lead to my holiness,
my happiness and the salvation of souls.

Teach me how to talk with You and listen
to You, so that in the quiet of prayer You can
open my heart to know and follow this plan.
If I am called to a vocation in Your Church,
give me the courage to say “yes.”
If I am called to the vocation of marriage,
lead me to my future spouse.

Please place holy people along my path to
help me know, love and serve You, so that
I become an effective witness of
Your love in the world.

Amen.

⁶⁶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⁹⁹

Jeremiah 29:11 NIV

1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2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예방 수칙은 주일미사와 동일합니다.)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목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아세례 안내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2021년도 매일미사 책 주문

- 금액 : 1년분 \$65
- 문의 : 성물부 회장 **조로사** (703) 608-7191

7 문화부 봉사자 모집

- 문화부 활동과 가톨릭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상편집, 그래픽디자인, 음향장비**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정주용 토마스 (703-509-2287, juyong_j@hotmail.com)

· 지정 노인 센터 독감 예방 접종 제공 ·

- 만 50세 이상 웨어팩스 주민 대상 • **예약 필수** (703)246-6010 TTY 711
- 11월 9일(월) 오전 9시-오후 3:30 (10, 12일도 이용 가능)
Lewinsville Senior Center, 1613 Great Falls St., McLean
 - 안전을 위해 예약 인원 제한
 - 얼굴 덮개/ 마스크 착용 • 출입문에서 체온 측정
 - 6Ft 거리 유지 • Covid- 19 검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www.fairfaxcounty.gov/flu 참조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32주 주간: 예제 30-34, 3요한 1**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11월 1일(연중 제31주일)

주일헌금	\$2,627.19
교무금	\$7,345.20
교무금(크레딧카드)	\$5,170.00
감사헌금	\$2,385.00
합계	\$17,527.39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11월 11일(수) 오전 6:15-6:45 | 11월 14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르피딕 -1’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보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11월 12일(목) 오후 5:00-6:00
- 11월 13일(금) 저녁 8:00-9:00
- 11월 15일(일) 오전 6:00-7:00



1. 위대한 성인들 - **영적 동반자들**
2.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고초골 성지 2편**

평신도 주일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1**

-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지켜가게 하소서.
 - 주님께서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 주님께서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미사 참여 신청자 중 선착순 100명까지 미사 참여 가능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화요일	07:30 PM
	· 10:00 AM		수요일	11:00 AM
	· 05:00 PM		금요일	07:3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근 (알렉산더)